

교회소식

- 2019년 새해를 맞아 신년주일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여전히 베풀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올해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함께 새해를 맞은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19년부터 10시에 본당에서 영어 예배로 드립니다.
- 새로 구성된 구역들과 2019년 제직회원 명단, 부서장 명단을 발표합니다.
- 2019 단기선교
 - 일정: 2월18일(월)-22일(금)
 - 장소: 혼두라스 렘피라 지역의 라플로레스
- 매일성경과 새해 달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부터 대심방 시작합니다. 심방일정표에 신청해 주십시오

섬기는 사람들

1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대표기도: 김동수 집사 (시 29)
이번 주 친교: 황상준 장로, 백희진 집사
다음 주 친교: 한주루 권사, 최문자 권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중·고등부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성경공부 (3월개강)	여성반 가족반 남성반	수 10am / 소회의실 목 8pm / 대회의실 토 7:30am / 소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중·고등부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교역자

담임목사: 이민영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교육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060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Invitation -----	Lead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	Together
Word of God -----	Psalm 34:8, 1 Peter 2:2-3 ----- Pastor Kim
Sermon -----	“Taste and See” ----- Pastor Kim
Intercessory Prayer -----	Leader
Benediction -----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Opening Hymn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438장(통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다함께
Hymn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대표기도 -----	시편 72:1-7, 10-14 ----- 김종한 장로
Prayer	Psalm 72:1-7, 10-14
찬양 -----	“주님의 영광위해 살리라”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이사야 40:1-11 ----- 인도자
Word of God	Isaiah 40:1-11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설교 -----	“너희는 위로하라” ----- 이민영 목사
Sermon	
*찬송 -----	550장(통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다함께
Hymn	Hail to the brightness of Zion's glad morning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1-7; 17:1-8; 22:1-7,20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 시작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마칩니다. 여기에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시록을 읽는 바른 시각이 담겨있습니다.

지난 주 말씀드린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낸 책입니다.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죽임 당하셨으나 부활승리 권세를 받으셨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과거와 미래와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승리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만나주신 예수를 더욱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마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또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강조하고 “이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들의 몫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는 2-3장에 나온 여러 교회들이 처한 어려움과 환난이기도 하고, 6장부터 시작되는 여러 재앙이기도 합니다. 12장부터는 뱀과 짐승들, 17-18장에는 음녀 바벨론의 모습으로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는 잘못된 렌즈는 짐승의 정체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의 정체를 낱알히 알아야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간신히 피하고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 정체를 밝혀준다는 사람을 좇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처음과 끝에 나타난 초점이 바로잡힌 렌즈,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승리의 관점에서 짐승을 보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더욱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뱀과 짐승, 음녀는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교회의 짝통입니다. 죽었다 나온 상처가 있는 머리를 가진 짐승은 죽임 당하셨으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짝통입니다. 온갖 화려한 보석과 노래가 있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성, 신부요 교회인 새예루살렘의 짝통입니다. 헛되고 멸망할 것들입니다.

결정적으로 사탄의 존재 자체는 짝통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심판 받아 멸망 당하려고 잠시 나타날 존재입니다. 과거의 유혹과 범죄, 그리스도의 고난에 잠시 등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로 그 권세가 완전히 패했습니다. 장차 잠시 풀려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승리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의 존재 자체,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즉 죽임 당하셨으나 지금 살아계시고 장차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의 영광과 승리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과 원수는 놀라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그 안에서 이길 존재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사탄과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과 고난과 질병과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곳, 예수님이 오시는 길, 그 빛을 더욱 빛나게 할 어둠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장차 그날 오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특히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기도제목 바로 그 가운데 오시옵소서!

Memo